

朝鮮 燕行錄에 나타난 ‘鳳凰山의 민족사 담론’ 研究

申斗煥*

目 次

1. 문제의 제기
2. 봉황산의 역사·지리적 배경
3. 봉황산의 민족사 담론 분석
4. 결론

1. 문제의 제기

봉황산 구름은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봉산의 달은 예쁘기도 하여라
사신 행차가 산 아래를 달리면
그윽한 일들이 마음에 기쁠 테니

靄靄鳳山雲
娟娟鳳山月
星輶山下馳
幽事可怡悅¹⁾

이 시는 목은 이색이 使命을 받들고 東平에 가서 客戶들을 구제하고 인하여 鳳凰山에 들른 應奉 傅子通을 송별하는 장편 시 속에서 필자가 뽑은 구이다. 우리의 사신들은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펼쳐지는 민족사의 요람인 봉황산을 지나간다. 목은은 이 시의 끝구에서 “그윽한 일들이 마음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이색, 『牧隱集』, 제3권.

에 기쁨테니(幽事可怡悅)”라고 하였다. ‘그윽한 일(幽事)’란 시어에 생각이 머무른다. 그윽한 일이란 무엇일까?

조선 사신들이 남긴 시문 속에 드러난 봉황산의 이미지(imagery:육체적인 감각이나 마음속에서 생성되어 언어로 표출되는 이미지의 통합체) 속에는 우리 고대 민족사 담론이 풍성하게 녹아 있다. 조선 사신들은 우리나라 역사에 밝고 詩文으로도 뛰어나 우리 상고사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을 것이다. 특히 대국인 중국에 사신을 가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약소국의 설움이 마음 한쪽 구석에 남았으리라고 생각한다. 연행록을 읽다가 보면 우리 사신들은 압록강을 넘자마자 강성했던 옛 고구려의 광활한 영토를 생각하고 우리 민족사를 생각하며 그 역사적 흔적을 찾기에 혼혈을 기울인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들은 멀리서부터 바라보이는 봉황산을 시로 읊고, 때로는 봉황산 근방에서 잠을 자고, 봉황산을 등산하여 산속에 있는 안시성을 유람하기도 한다. 조선 사신들의 시문 속에 등장하는 봉황산은 중국 사신 길에 반드시 보아야 할 우리 민족의 상징적 이미지였다.

봉황산의 이미지를 담은 사행기록은 약 100여 편이 넘는다. 조선의 선비들은 사행 중에 느낀 봉황산의 이미지를 묘사하고 표현해내려고 애를 썼다. 봉황산은 어떤 산이기에 조선 사신들은 이 산을 주목하여 그토록 아름다운 시문으로 남겼을까?

조선 사신들의 봉황산 담론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동명왕이 나오고, 양만춘이 나오고, 발해의 태자가 나오고, 울지문덕이 언급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무대 위에 봉황산을 올려놓은 조선 사신들의 연행록을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일련의 학자들에 의해 연행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행록 자료들이 집대성되고 각종 자료들이 연구된 저서와 논문만도 수백 편이 넘고 있어 지면상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봉황산의

이미저리에 대한 연구는 의외로 없었다.²⁾

본고에서는 조선 사신들이 남긴 문헌 속에서 봉황산에 대한 이미저리를 종합 분석하여 그 민족사 담론과 문학적 성격을 규명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문학사적 의의와 문학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2. 봉황산의 역사·지리적 배경

봉황산은 중국 遼寧省 鳳城市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약 50만 년 전부터 인간이 살아온 흔적이(베이징 원인)발견된 이래로 구석기 시대 유적들과 신석기 시대 유적들이 자주 발견되는가 하면 약 5000년 전의 홍산 문화가 발견되는 등 유구한 역사가 있었던 곳이다.

이 중에 부족국가 시대를 거쳐 가장 먼저 형성된 고대국가는 '고조선(아사달)'이다. 뒤이은 것이 夏나라이다. 고조선은 '한' '貊' '濊' 세 부족이 결합해 수립한 고대국가이다.

이 지역은 원래 고조선의 세력권이었으나, 전국시대에 燕나라가 고조선을 몰아내고 랴오허 강 유역까지 세력을 뻗었다. 진과 한 왕조는 현재 遼寧지역 대부분에 지배권을 미쳤고, 한대에는 요동군이 설치되기도 했었다.

이후 이 지역은 선비, 고구려, 발해, 거란, 여진, 몽골 등의 지배를 거치며 천 년 넘게 중국의 영향권 밖에 있었다. 명나라가 들어서면서 한족이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17세기에 들어서 청나라가 건국되자 심양에 수도를 정하였고, 이후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심양을 '봉천부'라고 칭했다.³⁾ 이처럼 이 지역은 우리 상고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이다. 그 중의 한 지역이 봉황산 주변이다.

2) 이승수(2006), 367~388쪽.

3) 김성호·김상환(2008).

조선 사신들이 오갔던 봉황산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연행 노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김경선은 “安市城 5리, 榛坪 2리, 鳳池 4리, 舊柵門 3리, 鳳凰山 12리, 봉황성 4리, 모두 30리, 三叉河 6리, 二臺子 4리, 乾子浦 10리, 일명 餘溫子介”⁴⁾라 했고,

담헌 홍대용은 “책문에서 鳳凰城까지는 35리. 봉황성에는 朝鮮館이 있는데, 이름을 柔遠館이라 함. 책문→안시성(10리)→진평 (2리)→구책문 (8리)→봉황산 (5리)→봉황성 (10리).

봉황성에서 건자포까지는 20리인데, 그곳에서 점심을 먹음. (‘건자포’를 일명 ‘여운자개’라고도 한다.) 봉황성→三叉河 (10리)→乾浦 (10리).”라고 하였다. 압록강으로부터 책문까지 130리이다. 또 三叉河부터 봉황성의 이 후는 길이 산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른바 東八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⁵⁾ 연행로 상의 주변 지명들과 거리를 참고하면서 봉황산의 지리적 배경을 고찰해 보면 봉황산은 산과 강, 그리고 평야들이 잘 조화된 천연의 요새로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지였다는 것이 감지된다.

천 년토록 좋은 이름 전해져 온 저 봉황산	佳名千載鳳凰山
순 임금과 주나라 때 몇 차례나 오고 갔나	舜日周朝幾往還
오색찬란한 봉황의 모습 이젠 볼 수 없고	五采九苞今不見
눈 속에 수심을 띤 그 모습 홀로 와서 본다오	雪中愁色獨來看 ⁶⁾

청음 김상헌은 봉황산을 지나며 위와 같이 읊었다.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전설 속에 떠오르는 봉황산의 지경을 묘사하면서 “순임금과 주나라 성현들은 몇 차례나 오갔을까?”라고 의문사를 던졌다. 순임금이 음악을 타면 봉황이 와서 춤추었고, 주나라 태평성대에 기산에서 봉황이

4) 이해응, 『계산기정』, 제5권, 「道里」.

5) 홍대용, 『湛軒書』, 외집10권, 「路程」.

6) 김상헌, 『雪窟集』, 「鳳凰山」.

울었다는 고사를 바탕으로 봉황산의 이름을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 오체는 봉황의 다섯 가지 깃털 무늬를 말하며, 九苞는 봉황의 아홉 가지 깃털 색깔을 말한다. 오색찬란한 무늬의 봉황을 지금은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작가가 바라본 겨울 봉황산은 눈 속에 서있다. 그 수심에 겨운 봉황산이란 표현 속에는 당시에 처한 혼란한 정치상황이 내포되어 있다.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불모로 끌려가던 이 길을 청음도 함께 오갔다. 청음은 우리 강토의 옛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봉황산의 민족사를 의식하고 당시의 병자호란 상황을 미적 심리로 묘사하고 있다.

이 시에 등장한 순임금은 동이족이라는 속설이 있었다. 시인의 상상 속에는 봉황산의 이름 속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떠올리려는 시상이 묻어난다. 우리 상고시대 민족사의 중심에 있는 봉황산의 역사는 요순시대부터 시작된다.

봉황산의 형상을 표현한 이미지들은 어떠했을까? 연행록을 읽다가 보면 봉황산의 이미지에 대해 우리나라 산세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이유는 바위산으로 우뚝 솟은 그 산의 형상이 마치 서울의 북한산이나 도봉산과 비슷한 인상을 주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 국토의 연장선상에서 상상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것들을 증명해 주는 자료들이다.

“二臺子로부터는 봉황산이 점차 가까워지는데 뽕족하게 깎아서 만든 것 같은 것이, 푸른빛이 藹然하여, 마치 서울 근처에 접어들어 멀리 삼각산의 아스라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⁷⁾

책문에서 鳳城까지 30리였다. 봉황산이 그 사이에 있는데 산밑을 빙 돌아 길이 나 있다. 지난 선달 책문에 들어와 서쪽을 우러러보니, 푸른 산이 우뚝

7) 李海應, 『蕝山紀程』, 제4권, 『復路』, 갑자년(1804, 순조 4) 3월 5일조.

천 길이나 솟아올라 있는데, 관문 안팎 2천 리에 오직 昌黎縣의 文筆峰만이 그런대로 비교가 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도봉산·금강산·청량산·월출산 등 여러 산이 비록 기묘하고 험준하기로 이름이 났으나 봉황산만은 못하다.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道峯山, 金剛山, 淸涼山, 月出山 같은 여러 산들이 비록 기이하고 높다는 것으로 이름이 났지만, 첩첩이 솟은 봉우리들이, 마치 불꽃이 훨훨 타오르는 수만 개의 햇불을 꽂아 놓은 듯한 봉황산에 비하면 도리어 손색이 있을 듯싶다. 하얀 꽃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동남쪽의 네댓 봉우리는 더욱 기특해서, 참으로 아침 해돋이에 보는 芙蓉처럼 매우 사랑스러웠다.⁹⁾

오후에 두 사신과 함께 봉황산에 올랐다. 산이 책문 안에 있는데 산의 높이는 우리나라의 白岳, 木笕과 비슷하나 돌길이 높다. 언덕으로 해서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 멀리 큰 들을 바라보니, 아득히 푸른 가운데 큰 내 하나가 북쪽으로부터 흘러 남쪽으로 義州, 三江으로 들어간다.¹⁰⁾

누각에 올라가서 봉황산을 바라보니, 파란 하늘 위로 우뚝 솟아 있어서 남색 절벽과 퍼진 산봉우리가 손바닥을 쪼개어 손가락을 갈라놓은 것 같아서, 뜻밖에도 삼각산과 도봉산을 다시 여기에서 보게 되니, 마음과 눈이 한꺼번에 즐거워져서 여행하는 피로가 싹 가셔버렸다.¹¹⁾

우리의 도봉산을 연상하게 하는 봉황산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 그렇게 큰 산도 아니면서 바위산으로서 다양한 형상성과 정감을 자아내는 봉황산은 우리의 역사정서에 너무나 중요하고 잘 어울리는 산이다. 이 산을 직접 답사한 필자는 그 형상이 우리나라 산을 닮았다는 것을

8) 홍대용, 『湛軒書』, 외집9권, 『鳳凰山』.

9) 김경선, 『연원직지』, 제5권, 『回程錄』, 계사년(1833, 순조 33) 3월 4일조.

10) 작자미상, 『연행기사(燕行記事)』 하, 무술년(1778, 정조 2) 3월 13일조.

11) 徐慶淳, 『몽경당일사』, 제1편, 『馬訾勅征紀』, 을묘년(1855, 철종 6) 11월 1일조.

직접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사신들의 시각에 비친 봉황산은 우리나라 산과 같은 민족적 정감이 서려 있다. 그래서 산이 서로 닮았다고 한다. 봉황산의 아름다운 경관이 사신들에 의해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었다. 이것은 옛 고구려의 강토를 의식하고 봉황산에 대한 민족적 정감이 다가와 그 동질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상상할 수 있는 데서 우리 고대사에 대한 애착으로 귀결될 수 있다.

우리 사신들의 시문에 묘사되는 봉황산 이미지 중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봉황산의 형상을 비유한 수식 속에는 전장의 기운이 함의되어 있으며 씩씩하게 생동하는 이미지가 들어 있다. 다음은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표현들을 나열한 것들이다.

5리를 가서 魚龍堆를 지났다. 어룡되는 하나의 구렁인데, 여기에 이르러 泉石이 더욱 기이하고 사랑스럽다. 또 10여 리 앞에 봉황산이 구름 낀 하늘에 꽃혀 있는 것이 보이는데 마치 갑옷 입고 투구 쓴 무사가 군열 앞에서 손을 모아 읊하는 것 같았고, 금석산과 서로 맞먹으나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모양은 그보다 낫다.¹²⁾

上龍山 아래로 지나니, 서쪽으로 바라보매 鳳凰山 높은 바위와蒼壁이 나르며 날개쳐 춤추는 듯하며¹³⁾

못 봉우리가 겹겹이 솟아오른 모양이 마치 1만 개의 햇불이 하늘 높이 활할 타오르는 것 같다.¹⁴⁾

舊柵門에 이르니 해가 비로소 오르는지라. 봉황산이 붓끝 같은 멧부리에 창검을 늘어세운 듯하니, 돌이 푸르고 경치가 맑고 아름다워 잠깐 보니 우리

12) 『奇遊錄』 신해년(1791, 정조 15) 11월 25일조.

13) 徐有聞, 『무오연행록』, 제1권, 무오년(1798, 정조 22) 11월 21일조.

14) 『湛軒書』, 외집9권, 『鳳凰山』.

나라 수락산이 생각나더라.¹⁵⁾

“봉황산 한 줄기가 남쪽을 향해 순탄하게 뻗어 내리다가 여기에 이르러서 갑자기 우뚝 솟아서 둥그런 봉우리가 됐는데, 그 높이가 수백 길은 됩니다. 그 위를 오르니, 시계가 확 트여 북쪽을 바라보면 봉황산이 마치 죽순이나 칼끝처럼 뾰족하여 아름다움과 기이함을 서로 다투고, 서쪽을 바라보면 천산이 먼 하늘 구름 사이로 나타났다 숨었다 하였으며, 남쪽을 바라보면 모든 산들이 다 동쪽을 향해 달렸습니다.¹⁶⁾

봉황산의 이미지를 표현한 위의 인용문들을 분석해보면 ‘갑옷입고 투구를 쓴 무사’, ‘창검을 늘어세운 행렬’, ‘일만 개의 횃불’ 등, 그 구사되는 비유의 정황이 그 옛날 군사적인 요충지를 의식한 듯 하나같이 씩씩하고 생동하는 전장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봉황산 속에 있는 양만춘과 당태종의 안시성 전투의 전장고사에 대한 상상력의 형상사유가 함의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봉황산의 묘사는 남쪽으로 흘러서 우리 국토와 이어지도록 상상하고 있어 우리 강토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3. 봉황산의 민족사 담론 분석

조선 사신들의 시문에 나타난 봉황산에 대한 기록 속에는 우리 민족사에 대한 어휘들이 풍부하게 드러난다. 왜 조선 사신들에 의해 봉황산에서 이렇게 많은 민족사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일까? 이 민족사 담론에는 고조선의 존재와 濊貊 족에서 파생되는 우리 민족에 대한 고대사의 전개

15) 徐有聞, 『무오연행록』, 제1권, 무오년(1798, 정조 22) 11월 23일조.

16) 김경선, 『연원직지』, 제5권, 『回程錄』, 계사년(1833, 순조 33) 3월 9일조.

와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을 시발로 해서 양만춘과 당태종의 전장고사, 연개소문과 설인귀, 발해의 태자 등에 대한 일화들이 풍부하게 전개되고 있다. 조선 사신들의 봉황산에 대한 담론은 우리 상고시대 민족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는 지금의 중국 동북지방에 펼쳐졌던 우리 상고시대 역사담론인 만큼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라 사료된다.

(1) 봉황산과 민족사의 전개

徐浩修(1736~1799)는 건륭제의 80세를 축하하는 萬壽節(1790년 8월 13일)을 맞이하여 부사 자격으로 연행을 다녀오면서 봉황산을 유람했다. 그는 봉황산의 역사 지리적 배경을 상세하게 기술해두었다. 그는 『연행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周나라 때는 본디 穢貊의 땅이었는데 秦에 이르러 조선에 소속되고, 漢 때는 玄菟에 속하였으며, 晉 때에는 平州에 예속되고, 隋 때에는 고구려의 慶州에 속하였으며, 당나라가 고구려를 평정하였을 때에는 安東都護에 속하였다가 뒤에 발해의 大氏가 여기를 점거하여 東京龍原府라 하였으며, 遼가 開州로 고치고 국군을 주둔시켜 동경에 속하게 하였다. 金나라에서는 石城縣의 땅으로 삼았고, 元나라에서는 東寧路에 소속시켰으며, 明나라에서는 鳳凰城堡로 하였는데, 淸나라가 天聰 8년(1634, 인조 12)에 通遠堡에 官兵을 설치하였다가 崇德 3년(1638, 인조 16)에 여기에 옮겨서 지켰다. 성의 둘레는 3리 80보이다. 남쪽에 문 하나가 있는데 처음 세운 연대는 알 수 없고, 乾隆 계묘년(1783, 정조 7)에 옛터에 따라 중건하여 건륭 무술년(1778, 정조 2)에 盛京의 관할하에 있는 邑鎭城池 18곳을 수선하는데, 5년 예정으로 착공하여 계묘년에 이르러 준공하였다. 봉황성은 狼頭山에서 서북쪽으로 1리, 六道河에서 동북쪽으로 4리 지점에 있다. 鳳凰山은 성의 동남쪽 5리에 있다. 산 위에 돌로 쌓은 옛 성이 있는데 10만의 군중을 수용할 만하다. 이는 곧 渤海國의 태자가 살던 곳이다.”¹⁷⁾

이것은 중국 동북지방에 퍼져있는 한 편의 우리나라의 상고사이다. 이 인용문은 봉황산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 전개가 간략하면서도 치밀하다. 봉황산의 역사적 배경은 거의 황하문명의 시작인 요순시대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 고대민족사와 관련된 濊와 貊의 땅과 민족은 우리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고대담론이다.

우리 한국인은 동이족의 주류로서 고대 만주지역에 거주한 종족 명칭인 濊와 貊으로부터 퍼져나온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예·맥·예맥의 상호관계와 그 종족적 계통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논란이 되풀이되어 왔다. 여기서는 중국 주나라 시대라고 언급하여 우리 고대사를 기원전 주나라 시대로 확대시켰다. 예맥에 대해서는 예와 맥으로 나누어 보거나, 예맥을 하나의 汎稱으로 보는 견해, 예맥은 맥의 일종이며 예는 예맥의 약칭이라는 등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부여를 세운 예맥족의 한 분파가 그 뒤에 세운 나라가 고구려이다.¹⁷⁾ 우리 역사에 기록된 東濊의 舞天은 우리 상고시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자료이기도 하다. 봉황산은 당태종 이전인 수나라 때 이미 고구려 慶州에 속해 있었다. 살수에서 수나라군사와 대적하였던 을지문덕의 『여주장우중문』의 시와 그 승리의 역사가 떠오른다.

봉황산은 예부터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곳이었다. 당태종과 양만춘의 전장고사를 비롯해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군사들의 주둔지로서 역할을 해왔던 곳이었다.

이 인용문에서는 이곳이 발해국의 태자가 살던 곳이라고 하였다. 발해가 적극적인 영토 확장을 통해 동북 만주와 연해주 남부 지역까지 판도를 넓혔음을 감안할 때 발해의 태자가 봉황산에서 성을 쌓고 살았다는 기록은 우리 민족사를 확대 고양하는 중요한 담론이다. 이는 발해에 대한 역사 기록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면 이것은 우리 발해사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

17) 徐浩修, 『연행기』, 제1권, 『起鎮江城至熱河』, 경술년(1790, 정조 14) 6월24일조.

18) 한영우(2001), 76쪽.

해 주는 역할을 한다.

김경선도 봉황산 지경에 대해 “『一統志』에, “城은 본래 濊貊 땅인데 발해 때에는 東京龍原府를 삼았고 遼나라에서는 開州鎮國軍이라 하였으며 원나라에서는 東寧路에 소속시켰다.”고 하였다. 심양에서 동북쪽으로 올라선창(兀刺船廠)까지 수천 리 사이에 봉황성이 그 어구를 엄매고 있다. “19)라고 하여 비슷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봉황산을 중심으로 예맥족이 살았고 그 이후부터 우리 민족과 관련을 지으며 봉황산은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로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렇듯 조선 사신들의 봉황산 사행기록 속에는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어휘들이 풍성하게 드러난다.

南九萬(1629~1711)은 다음과 같이 시로 형상화하고 있다.

봉황성 밖에 있는 봉황산에	鳳凰城外鳳凰山
옛 성가퀴는 봉우리 사이에 희미하다	殘堞依係疊巘間
당태종이 휴식했던 곳이라고 부질없이 말하나	漫說貞觀曾駐蹕
이곳이 안시성의 옛 관방이라고 전해오네	仍傳安市舊防關
눈알은 어찌하여 이곳에 떨어뜨리고	玄花豈向此中落
당태종은 정녕 어느 곳으로 돌아갔는지	黃屋定從何處還
지나간 자취 아득하여 물을 곳 없는데	往迹微茫無可問
하늘에는 활 같은 초생 달만 떠 있네	碧天唯有月如彎 ²⁰⁾

남구만은 봉황산을 지나면서 옛 안시성의 위치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는 봉황산에 대해서 시를 쓰면서 그 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문을 다음과 같이 병기하고 있다.

19) 김경선, 『燕轅直指』, 제1권, 『鳳凰山記』. “鳳凰山之西五六里有小城。曰鳳凰城。一統志曰。城本穢地 入渤海爲東京龍原府 遼曰開州鎮國軍 元屬東寧路 自瀋陽東北 至兀刺船廠數千里間 鳳城縮鞞其口。”

20) 남구만, 『약천집』, 제2권, 『鳳凰山 竝書』.

鳳凰城 柵門 밖에 봉황산이 있으니, 바위 봉우리가 펼쳐지고 동서로 마주 보고 서 있어서 마치 봉황의 두 날개와 같았다. 옛날에 축조한 석성이 두 산을 감싸고 있는데, 가운데에는 10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역관들이 이 성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곳은 바로 옛 안시성이다.” 하였는데, 나는 이 성이 너무 넓어서 방어하여 지키기 어려움을 의심하였고, 또 당 태종이 행군할 적에 해변의 평탄한 길을 따라 행군하였을 터인데 이 지역은 앞뒤에 내와 산이 험하게 막혀 있으니, 그들의 말이 옳지 않을 듯하였다. 그리하여 『大明一統志』를 가져다가 살펴보니, 거기에 이르기를, “金州衛의 동쪽과 遼東都司의 성 동쪽 360리 지점에 두 봉황산이 있으니 이 지역은 모두 당 태종이 駐蹕한 곳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폐지된 안시성이 蓋州衛의 동북쪽 70리 지점에 있는 바, 당 태종이 이곳을 공격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설인귀가 白衣를 입고 성에 올라간 것이 바로 이곳이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압록강이 흘러 안시성 아래에 이르러 바다에 들어가니 당 태종이 압록강에서 군대의 위용을 과시한 것이 바로 이곳이다.”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책문 밖에 있는 봉황성은 바로 요동도사의 성 동쪽 360리 지점에 있는 것이요, 개주위의 동북 70리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압록강과의 거리가 거의 3일 노정에 이르고 바다에 들어가는 곳이 아니니, 그렇다면 이곳을 가리켜 안시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당 태종이 고구려를 정벌할 적에 바다를 따라 동쪽으로 왔으니, 금주와 개주가 모두 당 태종이 행군한 길이다. 금주의 봉황산에 주필하였다는 것은 당연하나, 책문 밖 봉황산으로 말하면 산 이름이 우연히 같기 때문에 『대명일통지』처럼 두 곳을 인정하는 말이 있게 된 듯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종이 주필한 곳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또 안시성이라고 지목하였으니, 이는 『대명일통지』에 기재된 안시성이 따로 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전해지는 과정에 속아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가소롭다. 의주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압록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의 西岸에 폐지된 산성이 있는데, 이름을 高牟라 한다.” 하였으니, 이곳이 혹 『대명일통지』에 말한 폐지된 안시성인지 모르겠다. 애오라지 올시 한 수를 읊어 후인들에게 고하는 바이다.²¹⁾

21) 남구만, 『약천집』, 제2권, 『鳳凰山 竝書』.

이 並書는 약천 남구만의 민족사관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그의 봉황산에 대한 민족사 담론을 피력한 것이다. 그의 언급에서 안시성에 대한 의문과 고증은 좀 특이하고 부정적이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지역을 휩쓸고 다니던 전설의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등장되는 것은 특이한 일이다. 그 당시 전투에 대해 설명하면서 고구려의 옛 성인 고모산성을 언급하고 있어 빈약한 우리 상고시대에 대한 담론을 풍성하게 형성하고 있다. 남구만은 안시성을 고증하고 나서 의문을 품으며 시 한 수를 읊어 정리하고 있다.

봉황산 밖에 봉황성에서 옛 고구려의 성가퀴가 산봉우리 사이로 희미하게 바라보인다. 貞觀은 당태종의 연호(627~649)이다. 남구만은 당태종과 안시성 주 양만춘의 전장고사를 상상한다. 양만춘에게 맞은 눈알은 어디다가 버렸는가? 그리고 이 험한 산속에서 당태종은 어디로 도망을 갔는가? 그 자취들을 찾아 고증하고 싶어도 분명히 지적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신의 임무를 띠고 이곳을 지나며 그 옛날 강성했던 고구려의 옛 자취를 상상하며 더욱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사신의 심정을 엿볼 수 있다. 그 옛날 전장을 상상하는 시인의 시각에는 하늘에 떠있는 초생달도 활로 보인다. 남구만은 봉황산을 바라보면서 안시성을 떠올리고 고구려에 대한 승리의 역사를 상상하면서 회고의 정에 머물러 있다.

김경선은 봉황산 주변의 고대 지리적 환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고대 민족사의 확대를 위한 지리적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당서』를 고찰하고 봉황성을 평양이라고 지적하고 봉황성을 또한 王儉城이라고 하였다. 『地誌』에는 또한 '봉황성을 평양이라 한다.' 하였으니, 이는 어떻게 하여 이름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요동이 본래 조선의 옛 땅으로서 肅愼, 穢貊, 東夷의 여러 종족이 모두 衛滿朝鮮에 복속한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烏靺, 寧古塔, 後春 등의 땅이 본래 고구려의 옛 강토인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 후세 사람들이 땅의 경계를 자세히 알지 못하여 망녕되어 漢四郡의

땅을 모두 압록강 안에 국한하여, 사실에 억지로 합하여 구구하게 나누어 배치하였다. 그리고 다시 溟水를 그 속에서 찾아 더러는 압록강을 패수라 하고 더러는 淸川江을 패수라고 하고, 더러는 대동강을 패수라고 하니 이것은 조선의 옛 강토가 싸우지 않고도 저절로 축소되는 것이다.

발해 武王 大武藝가 일본의 聖武王에게 답한 글을 고찰하건대, “고구려의 옛터를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가지고 있다.[復高麗之舊居 有扶餘之遺俗]”하였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한사군은 절반이 요동에 있고 절반이 여진에 있으니, 이 둘을 한 데 모으면 본래 우리나라의 면적을 더욱 징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조선과 고구려의 옛 疆域을 찾으려면 먼저 여진을 국경 안에 합친 다음 패수를 요동에서 찾아야 한다. 패수가 확정된 후에 강역이 밝혀지고, 강역이 밝혀진 후에 고금의 사실이 맞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봉황성이 과연 평양일까? 이는 역시 혹 箕氏, 衛氏, 高氏가 도읍한 곳이면 하나의 평양이 된다. 『唐書』 『裴矩傳』에, “고구려는 본래 孤竹國인데, 周나라는 箕子를 봉하고 漢나라에서는 4군으로 나누었다.”하였는데, 이른바 ‘고죽국의 땅’은 지금의 永平府에 있다. 또 廣寧縣에 있는 옛날 기자의 사당에는 髡冠을 쓴 塑像이 있었는데, 명 나라 嘉靖 때 兵火로 불탔다. 광녕 사람들이 더러 평양이라 했고, 『金史』나 『文獻通考』에 모두, “광녕과 咸平이 모두 기자가 봉한 땅이다.”라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영평과 광녕의 사이가 하나의 평양인 것이다. 『遼史』에, “발해 顯德府가 본래 조선 땅으로서 기자를 봉한 平壤城인데, 요 나라가 발해를 치고 東京이라 고치니 곧 지금의 遼陽縣이 그것이다.”하였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요양현이 하나의 평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평양을 평양이라 하는 사람은 대동강을 가리켜 패수라고 하고, 평안·함경 두 道界 사이의 산을 가리켜 이것이 蓋馬大山이라 한다. 요양을 평양이라 하는 사람은 葦芋 灤水를 가리켜 패수라 하고, 蓋平縣의 산을 가리켜 이것이 蓋馬大山이라 한다. 비록 어느 것이 옳은 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지금의 대동강을 패수라고 하는 것은 자진하여 강토를 작게 만드는 의논일 뿐이다.

唐나라 儀鳳 2년에 고구려 왕 藏을 遼東州都督으로 임명, 朝鮮王으로 봉하여 요동으로 돌려보내고, 이어 安東都護府를 新城으로 옮겨 통할하게 하

였다. 한 나라 樂浪郡 治所가 요동에 있는 것은 지금의 평양이 아니라 바로 遼陽의 평양이다.²²⁾

이 인용문은 조선 순조 때 金景善(1788~1853)의 『鳳凰城記』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연암 朴趾源(1737~1805)의 『열하일기』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서 새로운 저술이라고는 보기는 힘들다. 이것은 우리의 상고시대 국토의 역사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있으며 우리 고대 영토에 대한 중요한 언급으로 문제작이라고 할 만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봉황성을 王儉城이라고 한다'고 한 부분이다. 王儉이란 상고시대 어휘가 가져다주는 역사적 상상력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불현듯 일어나는 『삼국유사』에서 檀君의 王儉과 바로 연관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까? 고대사 강토 담론에 대한 문헌이 극도로 적은 상황에서 이 자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봉황산이 옛 고구려의 영토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리 고대 영토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두고 모두 僞書에 사로잡힌 논란으로 판정되고 허황한 주장이라 일관했던 상황 속에서 이 국토에 대한 이론은 많은 점을 상상하게 한다.

『환단고기』를 만 번 읽는 것보다 이 김경선의 『鳳凰城記』를 한 번 읽는 것이 훨씬 낫다. 여기에는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서도 언급하지 못한 사실들이 수도룩하다. 김경선은 기본적으로 연암의 『열하일기』를 바탕으로 고대 우리 강토에 대한 역사적 상상력을 최대한 넓게 펼치면서 우리 강토의 역사에 대한 축소지향적인 역사적 상상력을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왕검성, 숙신, 예맥, 동이, 위만조선, 개마대산, 한사군, 패수, 평양에 대한 풍성한 우리 민족사의 고대 담론은 우리의 역사적 상상력을 고취하고 고대사의 심연을 확대 고양시키고 있다.

22) 김경선, 『연원직지』, 제1권, 『鳳凰城記』, 임진년(1832, 순조 32) 11월24일조.

(2) 봉황산과 양만춘의 전장고사

조선 사신들은 봉황산을 지나면서 안시성에 대한 관심을 유난히 드러낸다.安市城은 어디였을까? 조선의 사신들은 안시성에 대해 많은 담론을 남겼다.

徐居正(1420~1488)은 1460년 이조참의 때 謝恩使 正使로 명나라에 다녀오면서 봉황산에 들러 시를 지었다.

봉황산 빛은 울창하고 높은 것이 하늘같건만	鳳凰山色蔚齊天
봉황은 가고 산은 비어 옛일은 아득해라	鳳去山空事渺然
성가퀴는 터만 있고 오랑캐가 살고 있는데	雉堞有基棲孽虜
황학루는 땅에 없는데 날아간 신선을 찾는다	鶴樓無地訪飛仙
강산은 고구려와 백제가 분쟁하던 그날이요	江山麗濟分爭日
천지는 금과 요가 할거하던 그해로다	天地金遼割據年
나도 일찍이 개주에서 옛일을 조문했노니	我亦開州曾弔古
긴 숲 노목은 찬 안개에 잠겨있네	長林老樹鎖寒煙 ²³⁾

그는 봉황은 떠나고 없는데 이름만 남았다는 시상을 떠올리며 최호의 『황학루』 시를 생각했다. 그 옛날 전설의 성인들이 머물렀던 봉황산이 지금은 오랑캐 땅이 되어 있다. 성은 그 옛날 우리 고구려 성인데 그 성에 머물렀던 옛 선인들을 찾는다. 여기서 고구려와 백제가 분쟁하던 날은 우리의 민족사를 상상하고 중국 천하는 금나라와 요나라가 중국을 할거할 당시 역사를 상상하며 역사적인 전장이었던 봉황산을 회고하고 있다.

서거정 자신도 양만춘과 당태종의 전쟁에서 눈에 화살 맞은 개주성의 고사를 언급하였다 하고 있다. 서거정은 『필원잡기』에서 세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눈에 화살을 맞고도 양만춘에게 충성스런 신하라고 비단

23) 서거정, 『사가시집보유』, 제2권.

100필을 하사한 당태종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노거수들이 우거진 긴 숲이 안개에 잠겨있다고 표현했다.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안시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때마침 봉황성을 새로 쌓는데 어떤 사람이, “이 성이 곧安市城이다.”라고 한다. 고구려의 옛 방언에 큰 새를 ‘安市’라 하니, 지금도 우리 시골말에 鳳凰을 ‘황새’라 하고 蛇를 ‘배암(白巖)’이라 함을 보아서, “隋·唐 때에 이 나라 말을 좇아 봉황성을 안시성으로, 蛇城을 白巖城으로 고쳤다.”는 전설이 자못 그럴싸하기도 하다. 또 옛날부터 전하는 말에, “安市城主 楊萬春이 당 태종의 눈을 쏘아 맞히매, 태종이 성 아래서 군사를 집합시켜 示威하고, 양 만춘에게 비단 백 필을 하사하여, 그가 제 임금을 위하여 성을 굳게 지킴을 嘉賞하였다.”한다. 그러므로 三淵 金昌翁이 연경에 가는 그 아우 老稼齋 昌業에게 보낸 시에,

천추에 대답하기로 이름난 양만춘
용 수염의 눈동자를 한 살에 떨어뜨렸네

千秋大膽楊萬春
箭射虬髯落眸子

라 하였고,

牧隱 李穡의 「貞觀吟」에는,

이것이 주머니에 든 물건이라 생각했는데
어찌 현화가 백우에 떨어질 줄 알았으랴

爲是囊中一物爾
那知玄花落白羽

라 하였으니, ‘玄花’는 눈을 말함이고, ‘白羽’는 화살을 말함이다. 이 두 노인이 읊은 시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이리라. 대개 당 태종이 천하의 군사를 징발하여 이 하찮은 단알만한 작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창황히 군사를 돌이켰다 함은 그 사실에 의심

되는 바 없지 않거늘, 金富軾은 다만 옛 글에 그의 성명이 전하지 않음을 애석히 여겼을 뿐이다. 대개 부식이 『三國史記』를 지을 때에 다만 중국의 사서에서 한번 골라 베껴내어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또 柳公權의 小說을 끌어 와서 당 태종이 포위되었던 사실을 입증까지 했다. 그러나 『唐書』와 司馬光의 『資治通鑑』에도 기록이 보이지 않으니, 이는 아마 그들이 중국의 수치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우리 본토에서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실을 단 한 마디도 감히 쓰지 못했으니, 그 사실이 미더운 것이건 아니건 간에 모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나는, “당 태종이 안시성에서 눈을 잃었는지 앓았는지는 상고할 길이 없으나, 대체로 이 성을 ‘안시’라 함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²⁴⁾

연암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안시와 봉은 같은 뜻이기에 봉황산은 곧 안시성이라고 한 공식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또 안시성의 전설에서 양만춘과 당태종의 전장고사를 이야기하면서 화살 맞은 당태종의 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승리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안시성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후대의 사론들도 양만춘의 이름이 기록된 문헌을 찾는 데에 공력이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연암은 이 성을 안시성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삼국사기에 실린 김부식의 역사관은 사대주의적 기술이라고 비판받아왔다. 연암도 삼국사기 고구려사의 편찬과정에 대해 양만춘의 사실기록 정확을 바탕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당태종과 양만춘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통감이나 당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중국의 사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다. 徐慶淳은 『몽경당일사』에서도 연암의 위의 인용문을 바탕으로 “鳳凰城을 보기 위해 10리를 돌아서 安市城을 지났다. 이 성은 봉황성 안에 있다. 당

24) 박지원, 『熱河日記』, 『渡江錄』.

태종이 친히 고구려를 칠 때에 이 성이 여러 달을 두고 항복하지 않았고, 성을 지키던 장수 양만춘의 화살에 왼쪽 눈을 맞았다. 당 태종이 回軍할 때에 양만춘이 성에 올라가서 절하고 사과하니, 태종이 명주 100필을 주었다 한다. 이 이야기는 김부식이 지은 『三國史記』에는 실려 있으나, 『通鑑』과 『唐史』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²⁵⁾라고 하였다.

김경선은 봉황산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鳳凰山記』를 남겼는데 위에 인용된 연암의 열하일기를 인용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 실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一統志』에, “봉황산은 都司城 동쪽 300리 지점에 있다. 산 위엔 10만 군중을 수용할 만한 돌로 쌓은 옛 성이 있는데,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칠 때 여기에 駐蹕했었다.”하였다. 이른바 옛 성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일컫는 바 ‘安市城’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안시성에 대한 재조명은 자주 있었던 일이다.

정조의 『홍제전서』에서는 안시성을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 들어 있다.

어떤 이는 “지금의 鳳凰城이 바로 安市城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봉황성에 닿기 전에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고 한 면만 성곽을 두른 곳이 바로 안시성이다.”라고도 하는데, 어느 주장이 맞는 말인가? 시험 삼아 형세로써 말해 보건대, 봉황성은 험준한 산천의 지세가 없는 반면에, 뒤의 주장에서 말하는 안시성은 산들이 모두 험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로지 한 면만이 터져 있어 진실로 만 명의 군사로도 함락할 수 없는 곳으로서 지금까지도 옛 축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니 이곳이 바로 城主 양만춘이 당태종에게 拜辭한 곳이 아니겠는가. 다만 성중에 우물이 부족하여 오랫동안 버티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 밖에도 달리 정험할 만한 사실이 있는가?²⁶⁾

25) 徐慶淳, 『몽경당일사』, 제1편, 『馬訾勅征紀』, 을묘년(1855, 철종 6) 11월 1일.

26) 정조, 『홍제전서』, 제116권, 『經史講義』, 53.

정조는 안시성을 재조명하면서 신하들에게 의문점을 제시하고 답을 구하고 있다. 이렇듯 ‘봉황성이 곧 안시성이다’는 결론에는 확실히 이르기 어렵지 않다. 그 시간적 거리는 흔적이 지워지고 오직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사에 애착을 지닌 조선 사신들은 서둘러 봉황성이 안시성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음의 인용문은 봉황산을 직접 유람하고 안시성에 대한 견해를 남긴 것이다.

“여기가 바로 古城의 북문 밖인데, 북문에서 책문까지는 약 5리 밖에 안 되니 안심하라.”했다. 앞으로 또 1리쯤 가니 양쪽 산이 점점 낮아져 오목하게 중간이 뚝 끊어졌는데, 석성이 산을 따라 내려온 것이 우리나라의 산성과 꼭 같았다. 중간 끊어진 곳은 북문이 있던 곳이었다. 문에 들어서니 성 안은 둥글고 편편한데 주위는 겨우 10여 리밖에 안 되었다. 동서로는 돌산이 높이 성 안을 안고 둘러 있어 몸에 날개를 붙이지 않고서는 오르내릴 수 없을 것 같다. 북문 좌우로 흙산이 약간 낮기는 해도 성을 쌓아서 막아야 할 거리는 수백 보에 불과했다. 앞은 평야와 통해 있는데 두 산이 감싸고, 남은 곳 역시 2백여 보에 불과했다. 거기다가 가로로 백 척 석성을 쌓아 안팎이 참절하였다. 성 갈퀴는 이미 허물어졌지만 그 튼튼하고 웅장한 모습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성이 비록 10리 둘레를 가졌지만, 방어할 필요가 없는 곳이 8~9리나 되고, 밖은 험하고 안은 순해서 수만 호가 살 수 있을 만하며, 때마침 오랜 가뭄 끝이었는데도 물과 샘이 넘쳐흐르고 있었으니, 정말 天險의 金城이었다. 이곳 사람들이 혹은 古城이라고 하고 혹은 안시성이라고도 한다. 당 태종이 천하의 총병력을 동원해서 몇 달을 두고 계속 공격을 하며 구름사다리니 距闕(성 안을 살피기 위해 만든 흙산)이니 하는 것을 써 가면서 끝내 공을 세우지 못하고 말았으니, 성주의 재력이 뛰어난 것만 이겠느냐? 반드시 지형의 험로써 제압했기 때문인즉 이것이 안시성임이 분명했다. 성 안엔 사람이 살지 않고 묵은 터와 담의 주초만이 남아 있었다.²⁷⁾

27) 홍대용, 『湛軒書』, 외집9권, 「鳳凰山」.

담헌 홍대용은 이 고성을 골고루 답사한 뒤 그 옛날 전해온 양만춘의 전장고사를 대비시켜보고 역사적 상상의 고증을 통해 이 古城이 안시성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담헌은 약 3개월 동안 진행된 안시성의 전투를 상상하고 묘사한다. 645년(보장왕 4) 당나라는 10만 명이 넘는 군사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 요동지방의 여러 성을 잇달아 함락시킨 뒤 태종의 직접 지휘로 안시성을 공격했다. 당나라 군사들은 온갖 攻城具를 동원하여 공격했으나 안시성의 군민은 힘을 합쳐 완강히 저항했다. 흠산을 쌓아 성 안을 공격하려던 당나라 군사들은 전세를 가다듬어 하루 6, 7회의 공격에도 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공방전이 3개월을 계속해도 성과가 없고, 9월이 되어 추위가 닥치고 군량이 바닥나게 되자 당나라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철수가 시작되자 그는 성 위에 올라 송별의 禮를 행했고, 태종은 비단 100필을 남겨 그 충성을 격려했다고 한다. 이렇게 안시성 전투에 대해 묘사된 자료는 흔하지 않다.

(3) 고구려시조 동명성왕의 민족사 담론

조선 사신들의 시문에 나타나는 봉황산의 민족사 담론에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옛날 이 언저리 봉황 한 쌍이 깃들었다가	雙鳳棲山昔此間
봉황은 떠나가고 산은 비니 그 이름 봉황이로다	山空鳳去鳳名山
순임금 음악 끊어지고 岐山 오동 늙어서	虞簫響絕岐桐老
만고의 왕의 봄은 다시 오지 않는구나	萬古王春不復還 ²⁸⁾

이 시는 조선 순조 때의 선비 李海應(1775-1825)이 冬至使 사절단의 일원으로 중국 연경에 갔을 때 봉황산에서 읊은 시이다. 봉황산이란 명칭

28) 李海應, 『薊山紀程』, 제1권, 『鳳凰山』, 계해년(1803, 순조 3) 11월 24일~30일조.

은 이 시의 서두처럼 봉황이 이 산에 깃들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였다. 작가는 이백의 『登金陵鳳凰臺』를 연상하게 하는 이 시구를 통해 봉황의 전설이 서린 유서 깊은 봉황산의 명칭을 되새겨 본다.舜임금이 음악을 연주하면 봉황이 와서 춤을 추었다는 전설이 있고, 周나라가 성해질 무렵 岐山에서 봉황새가 울었다고 전해진다. 이는 태평성대에는 봉황이 나타난다는 전설을 함의 시키고 이곳은 성인의 유향이 머무는 곳임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 이 시구에서 순임금이 등장하는데, 순임금은 동이 사람이라는 전설이 있었다. 또 기산은 봉황이 깃들었다는 대표적인 산으로 주나라의 태평성대를 상징한다. 봉황산을 주나라 기산에 대비시켜 성인의 고장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에서는 ‘萬古王春不復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것은 어느 왕조 누구를 회고하는 것인가? 우선 萬古라는 표현에서 오래 된 옛 왕조를 일컬으며 王春은 왕의 봄으로 해석했지만 이는 정월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은 곧 왕조의 시작을 알린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 전에 멸망되고 없어진 나라에 대한 회고의 정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고구려 왕조를 지칭하는 것이고 그 시작을 알리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고의 동명왕은 다시 오지 않는다. 봉황산은 요순시대 황하문명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어 우리 동방의 고대사를 간직하면서 역사에 등장된다.

이해웅은 봉황산을 안시성의 옛터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역사적 상상력을 전개하고 있다.

여러 산들이 깎아지른 듯이 서 있는 것이 보인다. 바로 안시성의 옛터다. 역사책에는, “唐太宗이 遼를 정벌할 때 이곳에 주둔하였는데 안시성의 장수 楊萬春이 굳게 지키고 나가 싸우지 않으며 성 위에서 拜辭하자 당 태종은 마침내 성에 육박하여 공격했지만 끝내 함락시키지 못했다.” 하였다. 어

떤 사람은 “東明王이 축조한 것이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시성은 益州 땅 동북 40리 지점에 있다.”고도 하는데 訛傳인 것 같다.

안시의 산성엔 흰 구름 많고	安市山城多白雲
성은 산세에 근거하여 멀리까지 구분이 없다	城根山勢遠無分
나는 수레 어지러운 대포 끝내 무슨 힘이 되었나	飛車亂轍終何賴
당 황제 동으로 와 부질없이 군사를 주둔시켰다	唐帝東來謾駐軍 ²⁹⁾

이해응은 위의 인용문에서 안시성은 동명왕이 축조한 것이라는 설을 내놓았다. 안시성의 옛터에 대한 고증과 당태종이 군사를 주둔시키고 양만춘과 전쟁을 했던 전장고사를 상상하면서 자궁심에 차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성은 동명왕이 축조한 것이라는 설을 언급함으로써 민족사의 담론을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의 선비들은 안시성의 전장고사에 대해 그 사실을 고증하고 싶어했다. 안시성은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 즉 동명성왕이 도읍한 곳이 맞는가? 이는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오래된 우리의 유적에 대한 중요한 담론이다. 월사 이정구는 다음과 같이 읊었다.

그 옛날 고구려의 시조가	伊昔句麗祖
이곳에다 도읍을 세웠다지	於茲作邑畿
지령은 참으로 세상에 드물고	地靈眞間世
천험의 요새 겹으로 성 들렀지	天險設重圍
봉황은 떠나가고 산만 남았고	鳳去山空在
성은 허물어지고 바위만 우뚝해라	城遷石自巍
아, 아득한 흥망성쇠의 자취여	茫茫興廢跡
고금을 회상하며 옷깃을 적시노라	今古一沾衣 ³⁰⁾

29) 이해응, 『薊山紀程』, 제1권, 『鳳凰山』, 계해년(1803, 순조 3) 11월 24일-30일조.

30) 이정구 『월사집』, 제2권, 『戊戌朝天錄上』, 『鳳凰山』 2首.

이 시의 제목에는 ‘산에 東明王의 옛 성이 있다.’는 부주가 붙어 있다. 월사는 봉황산을 바라보며 옛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이 도읍을 정한 곳이라고 하였다.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이어 영웅서사시의 성격이 이 시에 그대로 이어진다. 고구려 시조의 담론이 신화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실제적인 사료가 거의 없는데 봉황산 안에 있는 안시성이 동명왕의 실재 거주했던 터라는 설을 주장하여 시로서 형상화한 것은 우리 민족사의 확대이다. 인결지령이라 봉황산은 그 산새가 신령스러우며 그 험함은 천연의 요새지로 이는 우리 민족의 산실로 재조명되고 있다. 월사가 사신 길에 봉황산에서 품어보았던 우리 민족사에 대한 상상력은 어쩌면 사신으로 가는 임무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란 점에서 자궁심이 더욱 돋보인다. 허물어진 성에서 옛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을 회고함이며 봉황은 떠나가고 산만 남아 있는데 시인의 상상력은 끝이 없도다. 옛 강성했던 고구려의 흥망성쇠를 회고하면서 옷깃을 적신다. 봉황산이 주는 역사적 상상력의 모티브가 강력하게 시인을 사로잡고 있다.

백사 이항복도 월사 이정구에 이어 사신의 임무를 띠고 봉황산을 지나다가 다음과 같이 시를 읊었다.

듣자하니 천손이 머나먼 옛날에	聞說天孫遠
산을 인하여 옛 성터를 잡았는데	因山有舊畿
양을 매단 일은 속담에 전해오고	懸羊傳俗諺
묶인 말은 오랜 포위를 벗어났네	縛馬脫長圍
지나간 일이라 옛 성은 황폐하건만	往事荒城廢
석양 아래 첩첩 산봉은 우뚝하구려	斜陽疊獻巍
지금은 황제의 힘을 노래하노니	祇今歌帝力
땅덩이를 봉하여 무위지치에 들었네	封壤入垂衣 ³¹⁾

31) 『白沙先生別集』, 卷之五, 『次月沙沿道見奇(鳳凰山)』.

이 시는 『朝天錄上』이란 제하에 지어졌으며 월사 이정구가 사행 沿道에서 부쳐준 시에 차운한 것이다. 일찍이 월사도 봉황산을 지나면서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성터를 언급했다. 백사도 이 시에서 '天孫'이란 시어를 사용하여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을 언급하고 있다. 이 시구에서 언급된 천손은 고구려의 시조 東明王 고주몽이 자신을 天帝의 아들이자 河伯의 外甥이라 칭한 데서 온 말이다. 동명왕은 봉황산이 금성탕지의 요지이므로 이것으로 인해 도읍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사신들이 고구려의 옛 역사에 대해 사신 길에 읊은 것은 민족사의 의미가 더욱 새롭게 드러난다.

이 시 함련 '懸羊'의 전고에 의하면 “세속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城이 일찍이 적에게 포위되었는데, 성을 지키던 자가 끝까지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북에는 양을 매달고 구유 통에는 말을 묶어 두고서 밤중에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런데 양은 이리저리 뒤척거리면서 네 발굽으로 북을 차대고 말은 제자리에 서서 구유 통을 발로 마구 차서 똥똥 소리가 크게 울리자, 적들이 무슨 수비가 있는 것인가 의심하여 감히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마침내 적의 포위를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³²⁾라고 하여 이 시 말미에 이 고사를 확인해 두고 있다. 봉황산은 오래전부터 전장의 이미지를 붙이고 나타난다. 백사는 사신 길에 봉황산을 지나간다. 백사는 경련에서 석양에 봉황산을 지나가다가 황폐한 옛 성을 보고 회고의 정에 잠긴다. 옛 성은 지금 황폐하다는 말 속엔 그 옛날 동명왕이 성을 쌓던 곳이고 양만춘이 당태종의 군사를 막았던 일이다. 그 옛일을 간직한 채 석양에 봉황산은 묵묵히 아름답기만 하다. 당태종은 눈을 화살에 맞고 돌아갔다. 끊임없이 이어지던 전쟁은 이제 평화를 되찾고 봉황산은 황제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였다.

32) 『白沙先生別集』, 卷之五, 『次月沙沿道見奇(鳳凰山)』.

堯임금때 태평한 無爲之治를 상기하면서 「격양가」에,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 쉬며, 우물 파서 물마시고 농사지어 먹고 사는데,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한 皇帝의 다스림을 말한다. 이것은 지금 황제의 정치를 찬양한 것이다. 먼 옛날 천손이라는 용어는 중국에 복속된 나라가 아니라 자주국가로서 그 독립성을 강조하는 색채를 드러낸다. 천손은 어디가고 빈 성만 남았는가? 이 회고의 정 속에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이 봉황산에 도읍했던 사실을 영광스럽게 상상하고 있다.

내 일찍이 글을 읽어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을 헤아렸더니, 이제 그 땅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는 듯하나, 바다의 티끌과 뽕나무 발이 특별히 잠깐 사이라. 남겨진 자취를 어루만져 슬픔을 말하며 옛터를 찾아 눈을 굴리니 어찌 기이하지 않으리오 『老稼齋日記』에 이르되, “이는 고구려 東明王이 쌓은 성이요, 안시성이 아니라.”하니, 안시성만이 어찌 동명왕이 쌓은 바가 아니리오. 『一統記』를 보건대 이것이 실로 안시성이라. 여기에서 5리를 가서 駐驛山이 있으니 이 또한 명백한 증험이라. ‘주필’이란 임금이 거동하여 머문단 말이니,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칠 때에 이 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름이 주필산이라 하니라.

세상이 전하되, “안시성주를 楊萬春이라.”하니, 이 말이 『唐書衍義』라는 책에 있으나, 『史記』에 나타난 일이 없으니, 죽히 취하여 믿지 못하리라 하니, 이는 분명한 의논이라.³³⁾

봉황산 안시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론이 일어나고 있었다. 김창업의 『老稼齋日記』에 이르되, “이는 고구려 東明王이 쌓은 성이요, 안시성이 아니라하니, 안시성만이 어찌 동명왕이 쌓은 바가 아니리오.”라고 하였다. 이 의론에 대해 ‘안시성은 원래는 동명왕이 쌓은 것이다.’라는 것에 동조하고

33) 徐有聞, 『무오연행록』, 제1권, 무오년(1798, 정조 22) 11월 23일조.

그 이후부터 우리 강토와 연관지으면서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오다가 당나라의 침입에 양만춘이 이 성을 사수하면서 당태종과 양만춘의 전장고사를 만들어내었다. 그 이후 봉황산에서 양만춘이 당태종의 공격을 방어하던 상황에 대한 이론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모양이다. 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쌓았고 고구려 양만춘이 당태종과 겨룬 곳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모두 존재한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는 근거로도 볼 수 있다. 안시성에서 5리를 가서 주필산이 있다고 했다. 주필이란 이름은 당태종이 군사를 이곳에 주둔시켰다는 증거로 보면서 사서에 전하지 않는 양만춘의 이름이 당서연의에는 존재하나 사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을 주장하며 믿지 못하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쌓은 것은 분명하단 말인가? 우리역사에 동명왕 담론은 중요한 것이다. 老稼齋 金昌業(1658~1721)의 『연행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길이 봉황산으로 접어드니 산의 남쪽, 북쪽, 서쪽 삼면이 모두 눈에 들어왔다. 이 산은 크기는 우리나라의 水落山 만한데, 봉우리는 붓을 꽂은 듯하고 돌 빛깔은 푸르고 운택하였다. 동남쪽의 4, 5봉우리는 더욱 수려하여 우리나라의 산으로는 견줄 것이 없었다. 이곳의 산들은 거의가 깎아 세운 듯 가파르며 산기슭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산형과는 조금도 같지 않았다. 산 남쪽에古城이 하나 있어 石築이 완전하였는데, 모두들 이를 安市城으로 여기지만 잘 못이며, 혹자는 동명성왕의 옛 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근사한 듯하다. 『一統志』를 보면, '안시성은 蓋州의 동북 70리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곳과는 거리가 멀다. 34)

산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붓을 꽂은 듯하다고 그 뾰족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동남쪽 4,5 봉우리는 너무 아름다워 우리나라 산과는

34) 김창엽, 『연행일기』, 1권, 임진년(1712, 숙종 38) 11월 28일조.

견줄 수가 없다고 하고 우리나라 산의 형과는 조금도 같지 않다고 하여 다른 관람자와는 다른 견해를 내고 있다. 또 안시성이라는 말에도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성은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의 옛 성이라고 보는 견해에는 수긍을 하고 있어 또 다른 견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명성왕의 옛 성이라는 설도 한둘이 아니다. 김창업은 이곳 봉황산이 동명성왕의 옛 성이라는 말이 훨씬 더 근사하다고 했다. 이것은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을 들어 기원전으로 우리의 역사 강토를 돌려서 상상하게 한다. 우리 고대 동명왕에 대한 언급이 드러나고 있는데서 민족의 성지 봉황산은 또 다른 민족사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봉황산의 인문경관과 尊明排淸의식

『湛軒書』, 외집9권, 燕記, 『鳳凰山』은 담헌 홍대용이 봉황산을 등산하고 그 유산과정을 아름다운 필치로 기록해 놓은 봉황산의 유산기이다. 봉황산에 대한 승경들을 잘 묘사하고 있어서 봉황산의 이미지를 고찰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그가 봉황산 석문 안으로 들어가며 나타나는 경승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수백 보를 걸어 꼭대기에 오르자, 그는 여러 승지들을 하나하나 지적해 보여 주었다. 북쪽으로 큰 돌 봉우리가 있는데 땅에서 수십 길 되는 절벽 위로 조그만 집이 하나 보였다. 흡사 제비집 벌집처럼 매달려 있다. 관음굴이라 한다. 굴 위아래는 깎은 듯 발붙일 곳도 없다. 아무리 바라보아야 길을 알 수가 없었다. 서북쪽 봉 밑으로 솔숲이 우거진 곳에 수십 칸 전각이 보였다. 朝陽寺라고 한다.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고 있어서 지은 이름이다. 절 왼쪽으로 조그만 봉우리가 구불구불 내려오다가는 관음굴 앞에 와서 갑자기 30~40길이나 불쑥 솟아올라 있다. 그 위에 藥王·娘娘 두 廟殿이 있는데, 다 같이 허공에 바람을 타고 서 있다. 바윗돌로 담벽을 하고 고송 수십 그루가 서로 엇갈려서 울창하게 서 있다. 그때 마침 사람 둘이 소나무·돌 사이에

우두커니 서서莽倉히 마주 바라보고 있었다. 참으로 속세를 멀리 한 仙界와 같았다. 대개 이 산은 봉우리로 승경을 이루었는데, 꼭대기에 이룬 큰 洞府가 있어 수많은 절 집들로 장식을 하니, 기이하고 그윽하여 일만 개의 바윗돌이 숲을 이루고 서있어도, 험산이라거나 보기 싫은 모습이라곤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 없다. 이번 걸음에서 본 산수 중 제일의 장관이었다.³⁵⁾

봉황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관음굴, 조양사, 약왕전, 낭낭묘 등 불교와 도교의 인문경관이 넘쳐나고 있다. 담헌은 봉황산을 보기 싫은 곳 하나 없는 산수 중의 제일 광경이라고 했다. 담헌은 이곳을 지나 古城에 이르러 역사적 상상력을 총 동원하여 우리 민족사 담론을 형성시켜내고 있다.

먼동이 틀 때 출발하여 봉황산을 지나갔다. 동남쪽을 바라보니 4, 5개의 산봉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공중에 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방금 피어나는 芙蓉과 같았다. 보면 볼수록 더욱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었다. 책문에 이르기 전 4, 5리쯤에서 동쪽의 작은 길로 들었으니, 옛 성을 구경하고 싶어서였다. 길옆에 초가집이 몇 채 있었는데 호인 한 사람이 문 앞에서 길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깊이 들어가면 묘당이 있습니다.”하였다. 2리쯤을 가서 골짜기 어귀에 이르니, 어지럽게 돌이 쌓여 있고 물은 모두 말랐으며, 동서쪽에는 다 허물어진 성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옛날 성문을 세웠던 곳이었다. 이곳을 지나 깊이 속으로 들어가니, 가운데가 넓고 평평한 곳은 밭을 개간할 만하였고, 또한 집터 자리도 있었다. 사방에는 石峯이 둘러 있었고 산등성이를 따라가며 성을 쌓았는데 모두 石築이었다. 산기슭 하나가 서남쪽에서 길게 뻗어 내려오다가 평평한 곳에 이르러 갑자기 절벽으로 끊어지면서 石臺를 이루었다. 그 위로 올라가 보니 성안의 형세가 한눈에 모두 들어오고, 서북쪽에는 奇峯들이 더욱 많았으니, 모두 길에서 보지 못하던 것이었다. 『一統志』에 말하기를, “봉황산은 都司城 동쪽 360리에 있고, 위에는 돌을 겹쳐 쌓은 옛 성이 있는데 10만의 군중을 수용할 만하다. 당 태종이 고려를 정벌할 때 여

35) 홍대용, 『湛軒書』, 외집9권, 燕記, 「鳳凰山」.

기서 駐蹕했다.”하였다. 그러나 성을 쌓은 제도를 보니 우리나라에서 성을 쌓는 방법과 같았다. 남쪽에 將臺가 아직 남아 있었다. 북문 밖에는 세절이 있는데, 연개소문과 설인귀의 소상이 모두 그 안에 있다고 한다. 지난 번에 어떤 호인이 말한 묘당이 바로 이곳인데, 갈 길이 바빠 구경하지 못하였다.³⁶⁾

봉황산 네다섯 봉오리는 갓 피어나는 부용과 같다고 표현한 작가는 미적 안목이 뛰어나다. 古城에 대한 견해는 당태종이 주둔했던 곳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성을 쌓는 방식이 우리나라와 같다는 표현에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추구하고 민족사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북문 밖의 세절에 배향된 인물이 흥미롭다. 수나라의 공격에 살수대첩으로 승리를 이끈 명장, 대담한 격문을 날려 수나라 장수를 조롱했던 「여수장우중문시」로 알려진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과 백마를 타고 봉황산을 누빈 전설의 당나라 장군 설인귀의 영웅서사들이 전설로 전해질 것만 같아서 흥기된다. 우리 고대사의 빈약한 역사 담론이 이로 인해 조금은 풍성해질 수 있는 사찰들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도 이 자료는 부각되어야 한다.

멀리 봉황산을 바라보니, 전체가 돌로 깎아 세운 듯 평지에 우뚝 솟아서, 마치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세운 듯하며, 연꽃 봉오리가 반쯤 피어난 듯도 하고, 하늘가에 뭉게뭉게 떠도는 여름 구름의 기이한 자태와도 같아서 무어라 형용키는 어려우나, 다만 맑고 윤택한 기운이 모자라는 것이 흠이다.

내가 일찍이 우리 서울의 도봉산과 북한산이 금강산보다 낫다고 한 일이 있다. 왜냐하면 금강산은 그 洞府를 엿보면 이른바 1만 2천봉이 그 어느 것이나 기이하고 높고 웅장하고 깊지 않음이 없어서, 짐승이 끄는 듯, 새가 날아가는 듯, 신선이 공중에 솟는 듯, 부처가 도사리고 앉은 듯, 음산하고 그윽함이 마치 귀신의 굴속에 들어간 것 같다. 내 일찍이 申元發과 함께 단발령

36) 김창엽, 『연행일기』, 제9권, 계사년(1713, 숙종 39) 3월 13일조.

에 올라 금강산을 바라본 일이 있다.

때마침 가없이 파란 가을 하늘에 석양이 비졌으나, 다만 창공에 닿을 듯한 빼어난 빛과 제 몸에서 우러난 윤기와 자태가 없음을 느낀 나는 미상불 금강산을 위해서 한 번 긴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뒤에 배를 타고 상류에서 저어내려 오면서 頭尾江 어귀에서 서쪽의 한양을 바라보니, 삼각산의 모든 봉우리가 깎은 듯 파랗게 하늘에 솟구쳤다. 얽은 내와 짙은 구름 속에 밝고 곱게 아리따운 자태가 나타나고, 또 일찍이 남한산성의 남문에 앉아서 북으로 한양을 바라보니 마치 물 위의 꽃, 거울 속의 달과 같았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초목의 윤기 나는 기운이 공중에 어림은 旺氣라고 하였으니, 旺氣는 곧 王氣인즉, 이는 우리 서울은 실로 억만 년을 누릴 용이 서리고 범이 걸터앉은 형세였으니, 그 신령스럽고 밝은 기운이야말로 당연히 범상한 산세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봉황산 형세의 기이하고 뾰족하고 높고 빼어남이 비록 도봉·삼각보다 지나침이 있건마는, 어린 빛깔은 한양의 모든 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³⁷⁾

작자는 아름다운 봉황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묘사하면서 봉황산의 산세를 설명하고 있다. 손바닥 위에 손가락을 세운듯하고 또 연꽃이 반쯤 피어나는 봉오리 같다고 하늘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 봉오리 같다는 묘사에서 봉황산의 아름다운 여름이미지를 느낄 수 있다. 작자는 금강산이나 봉황산은 아름답지만 왕기가 서린 한양의 도봉산이나 북한산 만 못하다고 평하고 있다. 봉황산엔 왕기가 없고 한양 도성의 산에는 왕기가 있다는 산세를 논하는 것에서 우리의 자주성이 함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책문을 떠나 안시성에 이르렀다. 성은 봉황산 꼭대기에 있는데, 남은 성가퀴가 아직도 있고 삼면은 모두 절벽이다. 남쪽 한 면이 水門이어서 조금 平夷한데 그 너비가 수백 보에 불과하고 큰 내가 앞에 돌렸으나 역시 岩壘이다. 그러나 성안 基址는 경사지고 둘레 또한 좁다. 곧 탄환만한 작은 성이다.

37) 박지원, 『熱河日記』, 『渡江錄』, 27일 갑술조.

大軍이 오래 머무를 곳은 아닌 것 같다. 당 태종이 멀리 와 親征할 때 의당 낭패하였을 것 같은데, 그때 명장 楊萬春이 이 작은 성을 지켜 능히 萬乘 세력을 막아 냈으니 참으로 萬夫莫開인 요새이다. 또 10리를 가니 이곳은 예전 책문이다. 통역이 말하기를, ‘5, 60년 전에 청나라 사람들이 지금의 책문으로 물려 설치하였다.’고 한다. 생각건대, 봉성이 너무 가까운 것을 싫어하여 변경 땅을 점점 개척하지는 제책인가보다. 동쪽에는 봉황산 여러 봉우리가 모두 우뚝하여 하늘에 꽃혔는데, 곧 명나라 장수 李如松이 군사를 출정한 곳이다. 백 년이 지난 지금 옛날을 회고하는 감회를 금할 수 없다. 이 산은 은은히 비치어 완전히 우리나라 三峯 같은데 크기는 배나 된다. 또 그윽하게 솟아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후련케 한다. 참으로 중국 산천의 빼어난 모습이 이와 같다. 안시성은 곧 이 산의 산성으로 그 목구멍에 해당하는 요새이다.³⁸⁾

봉황산은 수려한 경관을 간직하고 있었다. 고구려 안시성에 대한 고대사 담론이 너무나 부족한 지금 이 인용문은 안시성의 미세 담론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봉황산 꼭대기에 있는 안시성을 직접 답사하고 그 형상을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이 자료 속에서 이것을 기록한 사람의 민족사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 있었다. 양만춘의 영웅서사에서 우리 고대 고구려의 강성함과 민족의 자긍심이 엿보인다. 또 봉황산은 임진왜란 당시 이어송이 명나라 군사를 출정시킨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임진왜란의 역사·지리적 배경에 대한 담론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임진왜란을 겪은 지 백여 년. 그 회고는 뼈아프게 다가온다. 이때에도 봉황산은 군사적 요충지였다. 완연히 우리나라 삼봉같이 빼어난 시원하고 후련한 산이지만 군사적 요새였다.

잠곡 김육은 사신을 오가면서 봉황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38) 이갑, 『燕行記事』, 권상, 정유년(1777, 정조 1), 11월 30일.조

이 산 진실로 기이하고 수려하니	玆山信奇秀
사랑스런 너의 이름 더욱 아름다워	愛汝名更佳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득한 옛날	人言往古時
봉황새가 아름답게 울었다 하네	鳳凰鳴啾啾
지금 와선 오랑캐의 지역 됐으니	今爲腥臊鄉
명과 실이 어쩔 그리 어그러졌나	名實何相乖
못 봉우리를 마치 한 데 묶어세운 듯	群峯如束立
우뚝 솟아 하늘을 찌를 듯한데	突兀衝天街
그 가운데 돌로 쌓은 터가 있다네	中有石築基
우뚝하니 솟아서 층층이 쌓았으니	矗矗橫層崖
이게 바로 안시성이라 이른다오	云是安市城
칠덕의 웅대한 마음 예서 어긋나니	七德雄心差
우리 동방에도 인물 있었다	吾東亦有人
어느 곳에 영웅의 혼 묻혀 있나	何處英魂埋
서성이며 옛 일을 생각노라니	躊躇念往事
격렬하게 나의 마음 아파온다오	激烈傷余懷 ³⁹⁾

잠곡은 수려한 봉황산을 아름다운 필치의 시로 형상화 하고 있다. 아득한 옛날이 봉황이 울었다던 그 이름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라. 그러나 지금은 오랑캐 땅. 잠곡은 봉황산이 오랑캐 땅이 된 것에 못마땅해 하고 있다. 그 화려했던 황하문명의 우아함이 오랑캐 손에 들어가 무너져 내림이 마치 문명의 종말을 고하듯이 존명배척사상으로 번져나간다. 높이 솟은 봉황산 꼭대기에 그 옛날 안시성을 보고 시로 형상화한 시인의 마음 속엔 고대 우리 민족사가 자긍심으로 물들어 당태종을 꺾은 양만춘의 전장고사를 위대한 영웅서사시로 읊어냈다. 七德은 당 태종이 지은 七德舞로 옛날 武王의 일곱 가지 덕, 즉 禁暴, 戢兵, 保大, 定功, 安民, 和衆, 豐財를 형상한 樂舞을 말한다. 당태종의 동방 정벌의 꿈을 좌절시킨 우리의

39) 『잠곡유고』, 제1권, 『鳳凰山』.

영웅 양만춘의 모습을 떠올리고, 지금은 오랑캐 땅이 되어 가는 옛날 고구려의 영토의 그 강성함을 그려보면서 격렬하게 일어나는 회고의 아픔을 절규하고 있다.

그 강성하던 고구려의 옛 역사가 지금은 오랑캐 땅이라는 현실을 생각하며 그 옛날의 고구려에 대한 민족사적 상상력을 펼쳐 보이고 있다. 명청 교체기 尊明排淸 사상으로 가득차 있는 조선 사신의 시선 속에 봉황산은 복잡한 정감을 자아낸다.

서산에 가을이 드니 푸르던 잎은 붉게 물이 들어	秋入西山綠染紅
작은 창가에서 마주대해 앉자 그림 병풍 편 듯하네	小窓相對畫屏同
높고 낮게 점철이 된 천연의 색이여	高低點綴天然色
반드시 화가가 솜씨 부려 칠할 필요가 없겠구나	未必丹青似許工 ⁴⁰⁾

이것은 단풍으로 물든 봉황산에 대한 가을의 이미지를 읊은 것이다. 봉황산의 전경을 회화적으로 구상해 보려는 작가의 의지가 아름다워 보인다. 봉황산의 진경산수화를 전망한 흔적이 보이는 아름다운 시이다.

몇 년 동안 오가면서 저 명산에 애석한 건	頻年來往惜名山
누린내 나는 오랑캐 땅 이 사이에 있는 것	淪陷腥羶在此間
흡사 서시가 늘그막에 임해서	恰似西施臨老境
도탄에 앉아 머리를 빗는 것 같구나	坐於塗炭整雲鬢 ⁴¹⁾

이 시는 잠곡이 봉황산을 형상화한 시 중에서 문제작으로 꼽을 수 있는 걸작이다. 이 시에 드러난 비유가 매우 흥미롭다. 작가는 봉황산의 아름다운 이름을 읊조리면서 오랑캐 땅에 대해 분통을 터뜨린다. 1636년 김육은

40) 『잠곡유고』, 제2권, 「鳳凰山」.

41) 『잠곡유고』, 제2권, 「鳳凰山」.

그해 6월 동지사로 명나라에 갔다. 이 시기 중국은 명이 쇠퇴하고 요동지역의 후금이 강성해진 시기였다. 김육은 요동을 통해 북경으로 가는 육로가 막혀 해로를 이용하여 북경으로 들어갔다. 6월에 떠난 사행은 12월이 되어서야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북경에서 병자호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통탄하였다.

김육은 일생동안 4번을 중국에 갔다. 3번에 걸쳐 북경에 사신으로 다녀왔고 한 번은 심양에서 장기간 체류하였다. 작가의 뇌리 속에 명나라 멸망 이후 동아시아가 문명의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인식한 존명배척사상이 강하게 함의되어 있다. 저 아름다운 명산 봉황산은 마치 뚝에 떨어진 꽃처럼 오랑캐 땅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청교체기에 오랜 중화의 문명이 오랑캐인 청의 손아귀에서 종말을 고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은 오랑캐 세상이 되어가는 봉황산에 대해 통탄하며 애석해 하고 있다.

오랑캐 땅에 봉황산이 있는 것은 “서시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도탄에 앉아 머리를 빗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흥미로운 야유를 퍼부어대고 있다.

특히 우리 역사를 강탈하려던 청에 대해 강한 불만이 있었다. 그 강성하던 고구려의 옛 영토가 지금은 오랑캐 땅. 저 봉황산 꼭대기에 민족 영웅들의 혼이 머무는 곳이 지금은 오랑캐 땅. 잠곡은 사신 길에 이곳을 지나며 위대한 우리의 고대사를 간직한 봉황산을 몇 번이고 읊었다. 그에게는 명청교체기 排淸사상에 젖어 우리 민족의 위상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은 봉황산의 이미지를 교차시키고 있다. 그 만큼 그는 우리 고대 민족사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있었다.

4. 결론

이상으로 연행록에 등장하는 봉황산에 대한 시문들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그 이미지들을 살펴보았다. 시중에 나도는 고구려사 서적을 백 번 읽는 것 보다 사신들의 봉황산 담론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사신들은 봉황산에 얽힌 그 승리의 민족사를 한 목소리로 예찬했다.

오늘날 많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봉황산을 트래킹하고 온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봉황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귀중한 민족사 담론을 알고 있을까? 봉황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조선 사신들의 민족사에 대한 담론은 열정적이었다.

봉황산이 속해 있는 봉황성 주변은 우리 고구려의 옛 영토였다는 점에서 우리 국토지리에 대한 고대 담론이 형성되는 중요한 지점이다. 사신들의 시문에 등장되는 봉황산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우리 고대사에 대한 담론은 우리의 역사의 범위를 확장시켜놓고 있다. 옛 한사군의 지형과 예맥족에 대한 언급 등 우리 고대사 영토의 확장을 시사하는 많은 역사적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었다. 순임금으로부터 고구려 시조 동명왕, 을지문덕, 연개소문, 양만춘과 당태종, 발해왕 태자, 등의 전설이 사신들의 시문을 통해 민족적 자긍심으로 회자되고 있었다.

중국의 동북지방에 대한 우리 역사 담론이 너무나 비약한 지금 봉황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리 사신들의 민족사 담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등장하면서 동아시아 문명의 위기를 감지하는 사신들의 예리한 추측은 중화사상을 긍정했다. 그 결과 사신들의 시문에 등장되는 존명배척사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봉황산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민족사와 함께 청의 등장으로 문명의 종말을 예리하게 느끼는 사신들의 시각에서 우리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간파할 수 있었다.

수많은 승리의 역사와 전설들을 간직한 봉황산은 조선 사신들의 관심사였다. 우리는 조선 사신들이 들려주는 봉황산의 민족사 담론을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선 사신들의 시문에 등장되는 고대 민족사의 담론들을 종합하고 재조명하며 분석하는 일은 우리 고대사 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때로는 역사서적에서 밝혀지는 우리 고대민족사 보다는 문학작품 속에 투영되는 역사가 더욱 풍부하고 실감나게 다가올 때가 있다. 왜냐하면 문학작품 속에는 기발한 상징과 비유를 통한 상세한 묘사가 있고 그 정당성과 승리를 미화하는 풍부한 상상력과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신들의 시문에 등장되는 봉황산의 형상화 속에는 민족사의 담론이 풍부하게 녹아 있었다.

봉황산은 도봉산이나 북한산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신들의 견해는 우리의 민족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봉황산이 우리 강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에 대한 다양한 형상성과 정감을 자아내는 봉황산은 우리의 역사정서에 너무나 중요하고 잘 어울리는 산이다. 우리 사신들의 시각에 비친 봉황산은 민족적 정감이 서려 있다.

우리 사신들은 봉황산에 대한 유산기를 남기고 시로써 형상화하면서 우리 민족주체성을 확대 고양하고자 애썼다. 중국에 사신을 가면서도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잃지 않으려는 선각자들의 민족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잘 계승하여야 한다.

조선 사신들이 봉황산을 조명하고 기록한 기행문학은 한 편의 조선상고사이자, 우리 민족문화의 보고요 우리 고대사의 심연이다. 앞으로도 조선사행의 기록에 대한 연구의 지평이 미세담론으로 새롭게 열리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역 연행록선집』, 민족문화추진회, 1976.
김경선, 『燕輶直指』.
김성일, 『鶴峯先生文集』.
김육, 『潛谷先生遺稿』.
박지원, 『국역 熱河日記』, 민족문화추진회, 1985.
서거정, 『국역 四佳集』, 민족문화추진회, 2004.
徐慶淳, 『몽경당일사』.
徐有聞, 『무오연행록』.
신채호, 『조선상고사』, 단재신채호기념사업회, 2003.
이정구, 『국역 月沙集』, 민족문화추진회, 1995.
이해응, 『薊山紀程』.
작자미상, 『燕行記事』.
최립, 『簡易文集』.
홍대용, 『湛軒書』, 민족문화추진회, 1975.
- 김성호·김상한, 『한중일 국가기원과 그 역사』. 맑은소리, 2008.
이승수, 『燕行路上的 공간 탐색』, 鳳凰山城 : 安市城說과 관련하여』, 『정신문화 연구』 제29권 제2호, 2006.
한영우, 『우리역사』, 경세원, 2001.

투고일 2014. 1. 17 심사시작일 2014. 2. 5 심사완료일 2014. 2. 28

Abstract

A study on Joseon(朝鮮) envoys(使臣) of travel notes to appeared on the Phonghwang-mountain(鳳凰山) of National discourse.

Shin, Doo-hwan

This paper is A study on Joseon(朝鮮) envoys of a document to appeared on the Phonghwang-mountain'(鳳凰山) of National discourse. Phonghwang-mountain'(鳳凰山) is located in Phongseong(鳳城) of Liaoning province(遼寧城) in China. On the way stop at their comings and goings here that Joseon(朝鮮) envoys used to visit the Phonghwang-mountain'(鳳凰山)

This mountain is the beautiful scenery and with eternal history and legends of civilization where the Yellow River and Humanities environment is rich. In particular, the ancient history of The Korea National Geographic discourse and Many ancient Nations in Northeast Asia of The nation's rich cultural melting marks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is deep in the mountains. A wide range of historical, religious, and cultural images were being deployed for Phonghwang-mountain'(鳳凰山) on Joseon(朝鮮) envoys' a document. People's Republic of China's former emperors, the Empire has served as a priest at this place. and Embracing history and the a traveler's journal, Phonghwang-mountain'(鳳凰山) is store A spiritual image and The mysterious image. This mountain is also the border of our ancient history and Ancient places of cultural exchange between the peoples of Northeast Asia. Phonghwang-mountain'(鳳凰山) is an important heritage of korea ancient Nations.

Keyword Joseon(朝鮮), envoys' a document, Phonghwang-mountain'(鳳凰山), travel notes, Humanities environment, National discourse.

